

보 도 자 료

배포 날짜

2026. 7. 6. (월)

총 4페이지

2026년 7월 6일 특성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릴레이 성명발표 15

구 분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 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숨
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릴레이
성명발표
담당

센터명

특성화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총 4장

담당자

진유림 팀장

연락처

02-825-1275

성 명 서

통계 밖의 피해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정부는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적 수준 등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와 전문 지원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명백한 ‘성착취’로 규정되었고, 모든 아동·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법이 바뀌었다고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려 하고 있으며, 수많은 아동·청소년은 더욱 교묘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성착취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적 수준 등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¹⁾은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상대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거나 위험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또한 피해 이후에도 자신이 범죄 피해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비장애 지원 사례보다 더욱 장기적이고 밀착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피해는 현장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책은 여전히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해가 갈수록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적 수준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특성화센터가 개소한 2021년에는 센터에 등록된 사례 가운데 지적장애 청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경계선 지적 수준 청소년은 전체 등록 사례의 5%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경계선 지적 수준 청소년이 등록 사례의 71.4%를 차지하며 지적장애 청소년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성착취 피해 지원 현장에서 경계선 지적 수준 청소년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것은 단순히 최근에 새롭게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경계선 지적 수준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피해는 과거부터 존재해 왔으나,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와 개념 자체가 부재한 탓에 막연히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으로만 인식되며 오랫동안 통계 밖에 방치되어 왔다. 경계선 지적 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토대로 이제야 비로소 그 존재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차원의 공식 기준과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제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공식 정의나 분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착취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가 집계되지 않으니 정책도, 예산도, 지원체제도 뒤따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국 17개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가운데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

1) 지적장애와 경계선 지적 수준

지적장애는 웨슬러 지능검사(K-WISC, K-WAIS) 결과 지능지수(IQ) 70 이하로,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 모두에서 유의미한 제한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등록된 경우를 의미한다.

경계선 지적 수준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유사하지만, 정도가 경미하여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으며, 이해력·기억력·응용력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한다. 현장에서는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통일된 공식 용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DSM-5 진단 기준,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센터)

이 한정된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특성화센터 단 한 곳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는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특성화센터는 현장의 지원 경험과 전국 유관기관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하였다. 이후 전국의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물론 보건복지부, 경찰청,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 문의가 이어졌다.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장의 증거이다.

그런데 현장은 어떠한가?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체계는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시에서 추가 인력(상담원 1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적 수준 청소년의 경우 장기간의 상담과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만큼 현재의 지원 규모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상 고난도 밀착 지원이 필수적이기에 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지역의 경우 단 3명의 상담원이 ‘사업’이라는 구조 속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상담, 사례관리, 법률·의료 지원, 보호자 상담, 온라인 아웃리치와 모니터링, 예방 교육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특성화센터 역시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이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모든 업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현재의 구조는 현장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지속 불가능한 지원체계일 뿐이다.

이에 특성화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 특히 경계선 지적 수준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공식적인 통계 기준을 마련하라.

더 이상 통계 밖의 피해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집계되지 않는 피해는 정책에서도, 예산에서도, 사회의 관심에서도 가장 먼저 사라진다. 청소년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성착취 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독립적인 시설로 전환하라.

불안정한 사업 구조와 고용 상태에서 벗어나 전문 지원 기관으로서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라.

3명의 상담원이 증가하는 전문 사례를 감당하도록 하는 구조는 현장의 헌신을 제도의 빈자리를 메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가 될 수 없다.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에 시시각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적 수준 청소년을 '통계 밖의 피해자'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이는 정책으로 바꾸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이제는 현장의 외침을 정책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응답할 때다.

2026. 7. 6.

사단법인 평화의샘 특성화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